

COME TOGETHER

아산무궁화축구단 월간 매거진 **함께해U**

제3호

2017년 04월

REVIEW

쾌조의 3연승 아산, 아산시의 자량이 되다
아산무궁화축구단, K리그 챌린지 2위

PREVIEW

홈 무패행진, 아산의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4월 아산무궁화축구단 경기별 프리뷰

INTERVIEW

아산 공격의 중심, 공민현이 아산을 말하다

APRIL HOME MATCH

아산  VS  부산
04월 02일(일) 15:00 @이순신종합

아산  VS  안산
04월 15일(토) 15:00 @이순신종합

아산  VS  성남
04월 22일(토) 15:00 @이순신종합

Smart Asan

푸드렐리

EG the1

SG 세계물산 **BASSO**

SG 신성건설 **MISO ZIUM** 미소지움

IS IMPERIAL SPORTS
(유)임페리얼 스포츠



ASAN MUGUNGHWA
MONTHLY REVIEW

쾌조의 3연승 아산무궁화축구단, 아산시의 자량이 되다

아산무궁화축구단이 쾌조의 3연승으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지난달 개막한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2위(3월 28일 기준)에 올라서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저력을 확실히 선보였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부심과 시즌에 앞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시작은 아쉽게도 경남에 패하며 아쉬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어서 가진 안양, 부천과의 홈 2연전에서 홈 팬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 2연승을 기록했다.

2연승의 비결은 홈 팬들의 응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홈 팬들의 관심과 응원은 뜨거웠다. 홈 개막전에 경기장을 찾은 아산 팬은 7,933명으로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최다 관중 전체 3위에 랭킹 될 만큼 많은 관중이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이어서 가진 부천과의 홈 경기에도 2,071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개막전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아산 시민과 팬들이 경기장을 찾고, 응원했음을 증명

했다. 이러한 홈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을 입어 아산은 홈 2연승을 기록하며 쾌조의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홈 2연승과 홈 팬들의 응원 덕분에 찾은 상승세는 수원 FC와의 맞대결에서 2:0 완승을 하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강등된 수원 FC와의 맞대결에서의 승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K리그 클래식로의 승격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아산으로서는 아산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대결이었지만, 아산이 2:0이라는 스코어가 증명하듯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클래식 무대의 가능성과 올 시즌 선전을 예고했다.

이러한 결과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아산시와 충청남도를 자연스럽게 전국에 알렸다. 성적으로 증명한 좋은 경기력으로 주목을 받은 아산 경기의 중계 방송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산시를 알리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산시민과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수준 높은 공격 축구가 선보여지면서 여가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아산무궁화축구단이 아산시의 새로운 자량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다. 앞으로의 아산무궁화축구단이 더 궁금해진다.





同行 함께 해쥬

제3호

2017년 04월

- 02 월간 리뷰 패조의 3연승 아산무궁화축구단, 아산시의 자량이 되다
- 04 월간 리뷰 아산무궁화축구단, 3월 경기결과 및 각종 기록
- 06 월간 프리뷰 홈 무패행진, 아산무궁화의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 08 인터뷰 아산 공격의 중심, 공민현이 아산을 말한다
- 10 구단 소식 최보경-주현재, K리그 100경기 출전 달성
K리그 챌린지 3R 베스트팀에 아산 선정
동양건설산업과 공식 스폰서 협약 체결
SG신성건설과 광고 후원 협약 체결
- 11 구단 정보 아산무궁화축구단 선수단 명단

발행일 2017년 4월 2일
 발행처 사단법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전화 (041)533-2017
 홈페이지 <http://www.asanfc.com/>
 디자인·인쇄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070)8680-5630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발행처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없이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ASAN MUGUNGHWA RANKING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경남	10	3	1	0	5	2	3
2	아산	9	3	0	1	8	2	6
3	수원FC	9	3	0	1	4	3	1
4	부산	7	2	1	1	5	3	2
5	부천	6	2	0	2	4	4	0
6	안산	6	2	0	2	4	5	-1
7	대전	4	1	1	2	5	6	-1
8	서울이랜드	3	1	0	3	3	5	-2
9	안양	3	1	0	3	3	7	-4
10	성남	1	0	1	3	1	5	-4

ASAN MUGUNGHWA ATTACK POINT PLAYER

**GOAL
TOP PLAYER**

 **임선영**

2 GOAL

4 GAME

**ASSIST
TOP PLAYER**

 **최진수**

1 ASSIST

1 GAME

K LEAGUE CHANGLING 1ROUND



1 패 0



**GYEONNAM
FC**

2017.03.05(SUN) 15:00
@CHANGWON
3,533

**ASAN
MUGUNHWA**

34' 말캉	골	-
8	슈팅	9
2	유효슈팅	3
13	파울	17
0	경고	2
0	퇴장	0
3	코너킥	4
18	프리킥	14
1	오프사이드	2
45%	점유율	55%

K LEAGUE CHANGLING 2ROUND



4 승 0



**ASAN
MUGUNHWA**

2017.03.11(SAT) 17:00
@LEESUNSIN
7,933

**FC
ANYANG**

36' 주현재 62' 공민현 69' 한지호 93' 임선영	골	-
17	슈팅	6
9	유효슈팅	2
11	파울	23
3	경고	4
0	퇴장	0
11	코너킥	4
24	프리킥	11
0	오프사이드	1
54%	점유율	46%



ASAN MUGUNGHWA
TOP P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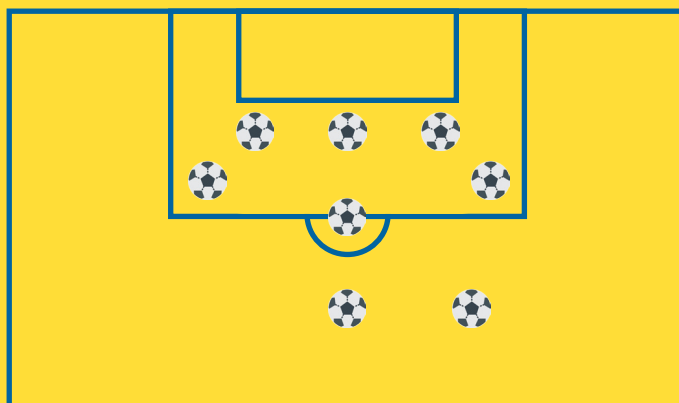
SHOTS
TOP PLAYER

이현승

11 SHOTS

4 GAME

ASAN MUGUNGHWA
GOAL POSITION



FOUL
TOP PLAYER

김준엽

9 FOUL

4 GAME

0 0 7

아산 특점은 오른발로!
8골 중 7골이 왼발

K LEAGUE CHANGLING 2ROUND



2 승 1



ASAN
MUGUNHWA

2017.03.19(SUN) 15:00
@LEESUNSIN
2,071

BUCHEON
FC

39' 이현승 82' 김은선	골	50' 바그닝요
22	슈팅	9
5	유효슈팅	4
11	파울	14
2	경고	1
0	퇴장	0
5	코너킥	2
16	프리킥	12
1	오프사이드	2
59%	점유율	41%

K LEAGUE CHANGLING 2ROUND



0 승 2



SUWON
FC

2017.03.26(SUN) 15:00
@SUWON
2,035

ASAN
MUGUNHWA

-	골	03' 임선영 82' 정성민
7	슈팅	12
4	유효슈팅	6
20	파울	17
7	경고	2
0	퇴장	0
3	코너킥	8
20	프리킥	20
0	오프사이드	3
49%	점유율	51%



홈 무패행진, 아산무궁화의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지난 3월 홈 경기에서 좋은 기억만을 남긴 아산무궁화축구단이 홈 경기가 많은 4월을 맞이한다.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이번 4월에 5경기 중 3경기를 홈 경기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치른다. 올 시즌 홈 경기 전승이라는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산무궁화축구단에는 희소식이다.

시즌 초반부터 K리그 챌린지 팀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홈에서 강한 아산무궁화축구단으로써는 홈의 이점을 잘 활용해 앞서나갈 좋은 기회다.

올 시즌 첫 경기이었던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한 뒤 가진 홈 개막전에서 아산무궁화축구단은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안양을 4:0으로 꺾

으며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 이어서 가진 부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홈 2연승을 기록했다.

시즌 첫 경기에서 아쉬움을 홈 팬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 홈 2연승과 시즌 3연승을 기록한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선전이 기대되는 4월이다. 특히 4월에 맞대결을 치르는 상대 팀 중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으므로 홈 선전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홈에서 강한 아산무궁화축구단이 홈 무패행진과 시즌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역대 상대전적 기록은 아산 창단 전 경찰 축구단 기록 반영



아산 무궁화

VS



부산 아이파크

2가지 연승의 의미가 있는 부산전

04월 02일(일) 15:00 @이순신종합

3월 홈 경기에서 전승(2승)을 거둔 후 4월 첫 경기를 부산아이파크와 맞는다. 아산은 부산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부산과의 맞대결에서 홈 연승과 부산전 연승이라는 2가지 연승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역대 상대전적

1승

1무

2패



4 득점



8 실점





대전 시티즌

VS



아산 무궁화

충남과 대전의 첫 만남

04월 08일(토) 15:00 @대전월드컵

지역적으로 근접한 대전과 아산의 첫 맞대결이다. 아산은 지난 시즌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3연승을 이어왔고, 특히 지난 8월 28일 경기에서는 아산이 5:0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아산에서 새로 시작한 무궁화 축구단이 아산과 대전의 첫 만남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주목된다.

역대 상대전적

4승

2무

2패



11 득점



10 실점



아산 무궁화

VS



안산 그리너스

깨끗하지 못했던 이별 후 첫 맞대결

04월 15일(토) 15:00 @이순신종합

무궁화축구단이 지난 시즌까지 연고 협약을 맺었던 안산시를 연고를 두고 창단한 안산 그리너스를 만난다. 지난 시즌 안산시와의 이별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이후의 첫 맞대결이다. 두 팀의 맞대결은 자존심이 걸린 맞대결로 주목을 받는다. 새로운 라이벌전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역대 상대전적

0승

0무

0패



0 득점



0 실점



아산 무궁화

VS



성남 FC

성남과의 첫 맞대결, 클래식 가능성 평가

04월 22일(토) 15:00 @이순신종합

아산이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성남 FC를 만난다. K리그 챌린지도 강등된 K리그 최다 우승팀인 성남과의 맞대결은 아산의 클래식으로서의 승격 이후 클래식 무대에서 가능성 유무를 점쳐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이다.

역대 상대전적

0승

0무

0패



0 득점



0 실점



서울 이랜드

VS



아산 무궁화

서울 이랜드전 무패행진 이어갈까?

04월 30일(일) 17:00 @잠실주경기장

지난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맞대결을 갖는다. 서울 이랜드는 신임 김병수 감독이 취임한 이후 새롭게 팀을 꾸리고 있다. 대학 감독 시절 주목을 받았던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K리그 챌린지에서도 펼쳐질지 주목된다.

역대 상대전적

2승

4무

2패



8 득점



8 실점





ASAN MUGUNGHWA
PLAYER INTERVIEW

아산 공격의 중심, 공민현이 아산을 말한다



08

INTERVIEW | 경기일정 및 경기장 오시는길



아산무궁화축구단

홈에서 2연승 중이다. 팀 분위기는 어떠한가?

첫 경기 때 저나 팀이 안일했던 것이 있다. 선수들과 감독님이 같이 열심히 잘 해보자고 했다. 경남 전에 제가 잘못 해서 안양전에서 선발 명단에도 빠졌다. 동료 선수의 부상으로 이른 시점에 교체로 들어가서 공격포인트도 기록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팀은 최근 3연승 하는 등 분위기는 엄청 좋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아산시와 인연을 맺게 됐다. 소감은 어떠한가?

아산시와 홈경기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이 생각보다 좋았다. 경기장 시설도 좋고, 첫 경기에서 이겨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장에 관람객도 많이 찾아오신 것 같다. 팬들께 감사하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아산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감독님이 바뀌셨는데 전에 있던 팀(부천)의 감독님이라 저를 또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도 감독님을 잘 알고 해서 지시를 잘 따르려고 하고 있다. 서로 잘 알아서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병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몸 만드는 상태라 기존 선수들끼리 하는 상태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새로 온 선수들도 있지만,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올 시즌 아산 축구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를 아산시민들에게 알려준다면?

패스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있다. 이홍실 감독님 때부터 만들어졌다. 우당탕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로 전개를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보인다. 그런 점을 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 많이 골을 넣어서 팬 여러분들이 환호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람, 공민현

아산무궁화축구단 매거진 모델로 선정됐다. 소감이 어떠한가?

제가 왜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뜻밖이다. 잘하는 형들이 많은데 놀랐다. 영광이다.

지난 안양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끄는 등 활약 펼치고 있는데 소감은 어떠한가?

공격포인트는 공격수들에게 자신감을 채워준다. 경기에 들어갔는데 바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가족들이 경기장에 찾아와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 경기장에 오실 때마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해왔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너를 따라 다녀야겠다 하셨다(웃음).

데뷔 이후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평가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지난 시즌에는 전반기 때 경기력이 좋고, 자신감이 있었다. 지난 시즌 공격포인트를 전반기에 다 기록했다. 후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족했는지 부진했었다. 올 시즌에는 몸 관리를 더 잘해서 전, 후반기 모두에서 좋은 기록 남기겠다.

아산 선수 생활로 1년 반이 되었는데, 친한 선수들은 누구인가요?

동기들과 친하다. 같은 방인 (박)요한이형이랑 친하고, 부대에서 잘 맞는 황지웅, 주현재 선수 등과 친하다. 형들과 친하다. 형들이 분위기 좋다. (김)은성, (최)보경 선수들이 분위기 메이커이다. 나서는 먼저 말들을 많이 해주신다. 게임도 같이하다 보니 친하다.

아산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축구선수로서 강한 인상을 받은 동료는 누가?

다들 장점이 있지만, 클래식에 있던 형들이 다들 노하우가 있고 몸 관리를 잘 하더라.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잘하는 데 있었던 선수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점을 느꼈다. 경기 나가기 전에 웨이팅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런 것 같다. 저도 웨이팅 등으로 몸 관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산시민들에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점을 어필해달라.

저의 장점을 손을 꼽으려면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다. 유연함이 좋다고 형들이 평가해준다.

미래, 공민현

본인의 시즌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는?

올 시즌 목표는 챌린지에서 우승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 기여하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제 친구가 입대(조성준, 광주FC)하는데 그 친구가 클래식에서 뛰게 해주고 싶고, 남아있는 후임들이 클래식에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챌린지에서 데뷔해서 클래식 경험을 아직 못 해봤다. 클래식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다.

공민현 선수에게 아산 무궁화라는 팀과 팬들은 어떤 존재인가?

팀을 저를 더 발전시켜주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잘하는 형들과 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최)보경, (김)은선 형들과 함께 뛰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고마운 팀이고 군 문제로 해결되고 좋다. 팬들을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경기 끝나고 많이 기다려서 놀랐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남긴다면?

이번에 제대하는 형들이 부상 없이 제대 잘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잘해서 작년에 챌린지 우승 처음 해봤는데, 이번에도 우승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좋겠다.

아산&공민현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올 시즌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쳐서 더 많은 포인트도 올리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산무궁화 최보경-주현재, K리그 100경기 출전 달성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핵심멤버인 수비수 최보경과 미드필더 주현재가 K리그 1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올 시즌 1,2R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한 최보경과 주현재는 프로통산 100경기 출전 기록을 이뤘다. 공교롭게도 최보경과 주현재는 2011년에 나란히 프로 무대에 입성한 동기다. 데뷔 7년 차를 맞은 최보경과 주현재는 함께 100경기 출전 달성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됐다.

3월 18일을 기준으로 최보경은 통산 102경기, 주현재는 101경기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중앙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오가며 멀티 수비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최보경은 팀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부상으로 빠져있는 정다환, 박요한의 빈자리를 강한 리더십과 근성의 플레이로 메꾸며 수비라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부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알뜰살뜰히 챙겨 팀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몫하고 있다.

최보경이 수비의 한 축이라면 주현재는 공격 부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주현재는 지난 첫 홈 개막전인 FC안양전에서 강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구단의 역사적인 첫 골을 기록했다.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왼쪽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주현재는 아산에 없어서는 안 될 공격 자원으로 우뚝 솟았다.

공격과 수비에서 각각 주축을 이루고 있는 최보경과 주현재가 아산무궁화를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이끌지 주목된다. 최보경과 주현재의 K리그 통산 100경기 기념식이 진행되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두 번째 홈경기는 오는 19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KEB 하나은행 2017 K리그 챌린지 3R 베스트팀에 아산무궁화 선정!



아산무궁화축구단이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 베스트팀에도 선정됐다.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지난 3월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 발표 한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지난 2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 된 이후 2라운드 연속으로 베스트에 선정됐다.

지난 19일(일)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이현승과 김은선의 골에 힘을 입어 2:1 승리를 거둔 아산무궁화축구단은 3라운드를 치른 K리그 챌린지 10개 팀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베스트 팀에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3라운드 MVP 선수 또한 아산무궁화축구단 선수가 선정됐다. 아산의 캡틴이자, 부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김은선이 MVP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이현승, 김준엽 선수 또한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지난 2라운드에서도 베스트팀에 선정됐던 아산으로서는 2라운드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되어 아산 공격 축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 라운드 종료 후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 MVP, 베스트 일레븐 등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베스트팀 선정 기준은 슈팅 횟수, 유효 슈팅 횟수, 득점 시간대 분포 등 공격 기록들에 가중치를 두고, 파울, 경고 등 페어플레이에 저해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포인트제도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확보한 팀이 베스트팀에 선정하고 있다.



아산무궁화, 동양건설산업과 공식 스폰서 협약 체결



동양건설산업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하 아산무궁화)의 공식 후원사가 되었다.

아산무궁화는, 지난 23일 오후 5시 아산시청 구단주 집무실에서 동양건설산업과 파격적인 금액의 광고 후원을 2019년까지 3년간 받기로 약속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아산무궁화와 광고 후원 협약을 맺은 동양건설산업은 1968년 설립해 주택 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토목사업 및 건축사업, SOC, 플랜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는 탄탄한 기업이다.

이날 공식 후원 협약식 동양건설산업의 우승헌 대표이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복기왕 구단주 그리고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동양건설산업 우승헌 대표이사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평소 많았는데,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제 이름이 '우승헌'인데 이름처럼 아산무궁화가 '우승'을 거둬 클래식 리그로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위트 넘치는 협약 소감을 밝혔다.

이에 복기왕 구단주는 "구단에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아산무궁화가 탄탄한 기반을 다지며 좋은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 계신 모두의 바람처럼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고 후원 협약을 맺은 아산무궁화는 구단을 활용해 동양건설산업이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산무궁화, SG신성건설과 광고 후원 협약 체결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구단주 복기왕)이 SG신성건설(대표이사 이명근)과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아산무궁화는, 지난 24일 아산시청 구단주의 집무실에서 SG신성건설로부터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아산무궁화와 광고 후원 협약을 맺은 SG신성건설은 1952년 창립 이래 국내외 다양한 건설사업을 펼치고 중동을 비롯한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 등 국외 건설시장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건설기업이다.

이날 공식 후원 협약식에는 SG신성건설 이명근 대표이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복기왕 구단주 그리고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G신성건설의 이명근 대표이사는 "아산무궁화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아산무궁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약 소감을 밝혔다.

이에 복기왕 구단주는 "SG신성건설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공식 후원이 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SG신성건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및 판촉활동을 펼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고 후원 협약을 맺은 아산무궁화는 앞으로 SG신성건설과 함께 손잡고 활발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